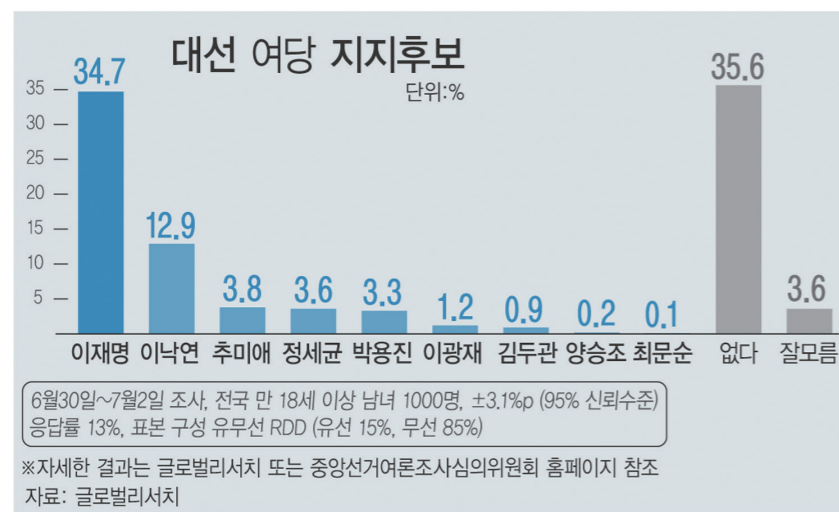


與 대선주자 지지율 '1강 1중 다약' 구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일 내내 대선 예비경선(컷오프)을 앞두고 있는 여권 대선 레이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독주 속에 여전히 '1강 1중 다약' 구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6월30일~7월2일 사흘간 실시해 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대선 주자 중 지지 후보로 이 지사를 꼽은 응답이 34.7% 가장 높았으며 나타났다.

이전 대표가 12.9%로 이 지사를 쫓았으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3.8%, 정세균 전 국무총리 3.6%, 박용진 의원 3.3%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다수 여론조사에서 추 전 장관과 박 의원의 상승세가 나타났지만 이번 조사만 놓고 보면 여전히 '다약(多弱)'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 다.

이어 이광재 의원 1.2%, 김두관 의원 0.9%, 양승조 충남지사 0.2%, 최문순 강원지사 0.1% 순이었다. 지지후보

이재명 34.7% 1위·이낙연 12.9%...추미애 3.8%
정세균·박용진·이광재·김두관·양승조·최문순 順

'없음'은 35.6%, '잘모름'은 3.6%로 집계됐다.

이 지사는 모든 성별과 연령대, 지역에서 이 전 대표를 상당한 격차로 앞섰다.

연령별로 보면 이 지사는 30대(42.7%)와 40대(44.3%), 50대(43.9%)에서 40%대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이 전 대표는 30대 14.5%, 40대 13.9%, 50대 10.4%에 머물렀다.

다만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약한 만18~29세와 60대, 70세 이상에서는 지지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와 해당 연령대에서는 이 지사 지지율도 20%대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지지후보 없음 응답이 높게 나온 대구·경북(25.4%)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이 지사의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한 가운데 호남에서도 이 지사가 38.0%를 기록, 이 전

대표(26.4%)를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이 지사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0.5%로 높게 나온 반면 여성은 29.0%에 머물러 대조를 이뤘다. 이 전 대표의 경우 남성 11.4%, 여성 14.3%였다.

여성인 추 전 장관은 남성(2.1%)보다 여성(5.4%) 지지율이 훨씬 높았다. 반대로 남녀평등복무제를 주장한 박 의원은 남성(5.2%)에 비해 여성(1.5%) 지지율이 훨씬 낮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2021년 5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대별·권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CATI 전화면접조사 100%로 유선(15%)과 무선(85%) 무작위 추출 전화조사(RDD) 방식이다. 응답률은 13.0%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범야권 대선주자 윤석열 26.3%로 1위...출마는 국민의힘 > 제3지대

홍준표 7.9%, 유승민 6.0% 안철수 4.3% 오세훈 3.9%
尹, 노년층·TK 지지율 높아...호남에서도 '두 자릿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범야권의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의 순이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5위를 차지했다.

윤 전 총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이른바 제3지대 보다는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높았다.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6월30일~7월2일 사흘간 실시해 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범야권 대선 지지후보로 윤 전 총장이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근 국민의힘에 복당한 홍 의원은 7.9%, 유 전 의원은 6.0%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4.3%, 오세훈 서울시장 3.9%를 기록했고, 대선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최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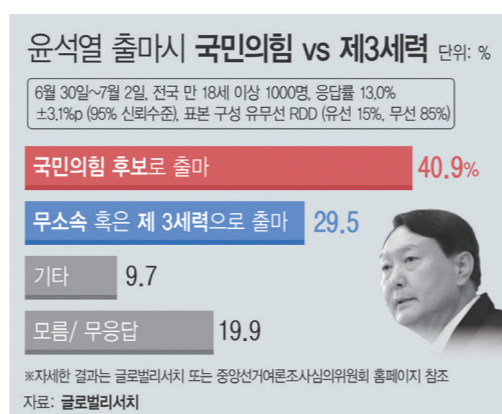
전 감사원장의 지지율은 2.7%였다.

또 원희룡 제주도지사 2.4%,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 1.4%,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1.2%,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0.9%,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0.2%에 머물렀다. 기타 0.5%였다.

윤 전 총장은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44.2%), 70세 이상(37.9%) 등 노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20대와 30대는 각각 16.7%, 16.8%로 집계됐다. 40대와 50대에선 각각 20.2%, 26.3%로 젊은 층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가장 높은 39.6%를 기록했고, 서울 30.9%, 강원·제주 28.5%, 부산·울산·경남 26.8%, 인천·경기 25.8%, 대전·세종·충청 19.2%, 광주·전라12.0%였다.

일부 강성보수 진영에서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한 윤 전 총



장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과 달리 TK 일반 민심은 우호적인 점이 눈에 띈다. 호남에선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두 자릿수라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성별 지지도는 남성(26.9%)과 여성(25.7%)의 비율이 비슷했다.

윤 전 총장 다음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홍 의원은 남성(10.5%)이 여성(5.3%) 보다 두 배 많은 지지를 보였고, 연령별로는 20대(10.3%)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윤 전 의원은 30대(11.0%)의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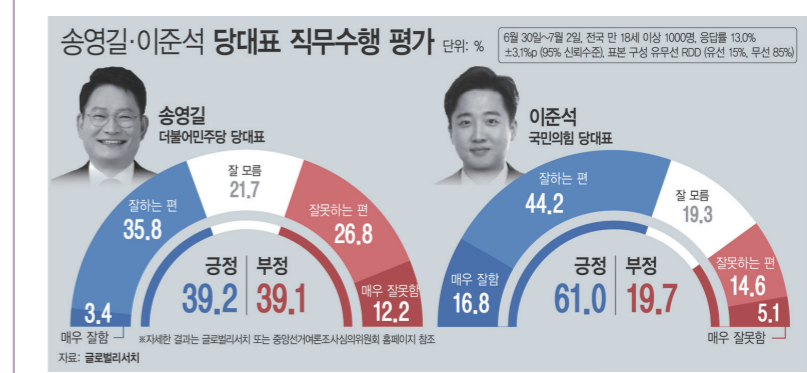
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유 전 의원은 보수 성향 대권주자임에도 대구경북(4.4%)보다 오히려 광주·전라(8.1%)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중도 성향의 안철수 대표는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를 쥔 '중원' 충청권에서 7.5%로 높았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PK지역의 지지율이 4.0%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윤 전 총장의 대선 행보와 관련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원하는 응답이 40.9%로 무소속 혹은 제3세력으로 출마하길 희망하는 응답자(29.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글로벌리서치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당 대표 누가누가 더 잘하나 이준석 61% vs 송영길 39%

여야 당대표의 직무수행 능력을 각각 묻는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잘한다'는 응답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6월30일~7월2일 사흘간 실시해 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로서 직무를 잘한다고 보느냐, 잘못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61%가 잘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잘못하고 있다'는 대답은 19.7%를 기록했다. 이 대표

는 지난 5월 11일 국민의힘 당대표로 당선됐다. 현정사상 최초의 30대 보수당 대표로 당선으로 주목을 받았다.

반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수행을 묻는 질문에는 '잘하고 있다'의 응답이 39.2%에 그쳤다. 송 대표가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대답은 39.1%를 기록해 '잘하고 있다'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5선의원인 송 대표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 당선됐다. 상대적으로 친문 색이 짙은 송 대표가 친문 후보들을 이겨 화제가 됐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소병철,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안전관리 시급한 시설 보수 등 위한 예산 확보

건물 노후화로 안전 문제가 제기됐던 순천시 외서면 복지회관 개보수 및 송광면 소방도로 개설, 봉화터널 인도 분진·소음 차단장치 설치공사 등으로 인해 순천 시민들의 생활 편의와 안전이 한층 더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 6월 30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984년 건축된 외서면 복지회관은 건물 노후화가 심각하고 내외부 시설이 낙후되어 시설 이용하는 주민들이 매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이 복지회관 2층에 위치한 회의실 이동 시 계단 이용에 따른 넘어지 사고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엘리베이터 설치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조속한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송광면 해당 지역 역시 마을 안길협쇄에 차량 통행에 주민들의 불편사

항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소방차 접근도 어려워 재해 및 안전 관리에도 취약하다는 지적이 수년 전부터 제기됐다.

이에 소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적극 건의하여 총 10억 원의 특교를 확보해냈다. 구체적으로는 ▲외서면 복지회관 전면 개보수에 3억 원, ▲송광면 소방비상도로 개설에 3억 원, ▲조례동과 조곡동을 잇는 봉화터널에 인도 분진·소음 차단장치 설치를 위한 4억 원이다.

소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외서면과 송광면 주민들과 봉화터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활 편의와 안전이 보다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순천 발전을 위한 대규모 지역 사업들은 물론이고 순천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틈새 예산도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윤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